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마피아



상하이 마피아. 지난 10일 '상하이 인베스트 워크' 교육 세션에서 필자가 강의한 '실리콘밸리 정신, 제로투원'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고, 행사에 참가했던 우리 스타트업 10개사가 결성한 모임의 이름이다. 사실 교육이 끝나자마자 이미 참가기업 대표 중 몇몇은 개별적으로 소속 기업의 이름 등을 넣어 'OO 마피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성공하겠다고 다짐(?)했고, 어떤 분은 내 강의에 등장하는 실리콘밸리 인물이 겪은 어려움이 지금 현재 당신 회사의 사정과 똑같다며, "우리 회사도 버티고 성공해서 꼭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 강의는 필자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모 대학원에서 가르친 과목 중 하나로, 실리콘밸리 최고의 파워 그룹인 페이팔 마피아와, 조직(?)의 대부인 피터 툴(Peter Thiel), 그리고 그의 저서이자 스타트업 교과서로 간주되는 '제로투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유통 등 필자가 강의했던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 유독 실리콘밸리와 제로투원을 강의할 때 가장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설레임을 최대한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했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중국의 투자자(VC)들을 연결시켜 주는 '상하이 인베스트 워크'를 시작한 건 작년부터다. 가뜰이나 벤처투자 생태계가 약한 우리나라인데 경기마저 안 좋으니 우리



스타트업들이 투자받을 곳이 없어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중국도 경제가 부진하긴 하지만, 벤처 투자 펀드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데다, 첨단기술을 알아봐주고 기꺼이 투자할 가능성도 우리나라보다 큰 게 사실이다. 한·중 양쪽 모두의 니즈가 맞을 것 같아서 한국벤처투자의 이창민 소장께 취지를 설명드리자 흔쾌히 같이 해보자며 적극 나서 주셨다.

예상은 적중해서 첫 행사인 '제 1회 상하이 인베스트 워크(2023. 9월)' 참가기업 모집 시작 열흘 만에 우리 스타트업 99개사가 신청했고, 이들 중 중국 투자자의 간택(?)을 받은 16개사와 중국 5개 투자기관의 미팅이 서울 COEX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3달 후인 작년 12월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하여 상하이에서 우리 스타트업 10개사와 중국 투자자 15개사가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무역협회 주최로 매년 COEX에서 개최되는 '넥스트 라이즈' 행사기간에 맞춰 중국 VC 8개사를 한국으로 보내 우리 스타트업들과 상담을 하도록 했다.

이런 행사에 대한 니즈는, 이달 초 '중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의 한·중 기업교류회 주관 기관의 자격으로 출장갔던 푸젠성 사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께서, "무역협회에서 우리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장을 마련해줄 순 없겠나"고 물으시길래, 이미 작년부터 그런 상

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걸 왜 내가 모르고 있었죠?"(^_^)라며, 향후 바이오 협회와도 공동으로 개최해달라 하셨다. 놀랍게도 바로 당일 카카오톡으

로, 개인적 친분이 있으시다는 우리 회사 최고경영진 중 한 분께 "상하이 지부와 행사를 기획하려는데 꼭 지원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다 한다.

이번 '상하이 인베스트 워크'에 참가한 기업 대표 중 한 분은 당신의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계셨다. 이 분이 식사자리에서 "중국이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 중국의 시대가 올 거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큰 시장 중국부터 진출하고 싶다"고 덤덤히 말씀하셨다. 문득 2000년대 초반 모 증권사 광고 문안 중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생각났다. 남들이 다 중국을 외면할 때 중국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기대가 희망과 보람이 되어 보상받기를, '상하이 마피아' 단원들이 지금은 캄캄한 터널을 지날지라도 결국엔 성공의 밝은 빛을 맞이하기를, 그리고 함께 웃으며 오늘을 회상하기를 기도해 본다.

신선영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



무협 최초의 여성 중국 지부장. 미주팀에서 미국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07년 중국 연수를 신청,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다. 이후 상하이 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베이징지부, 중국실, B2B-B2C 지원실 근무 및 신설된 해외마케팅실 실장으로 3년간 온·오프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주말마다 대학에서 전자상거래, 마케팅, 유통, 스타트업 등을 가르쳤다. 이화여대 영문학 학사, 중국사회과학원 경영학 박사. 저서로 '박람회 경제학'이 있다.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그리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이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 능력,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점진적으로 저하시키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2023년에는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50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0년 간 젊은 층에서 조기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젊은 세대로 하여금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전문가들은 치매의 조기 발병 원인으로 유전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을 꼽는다. 또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즉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퍼즐 게임(예: 테트리스)과 같은 두뇌 활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나 예술 활동도 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매일 걷기, 수영,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 봉사활동 등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디지털 치매'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복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은 기억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조절하고, 기술이 아닌 사람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치매 국가 전략'을 통해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증상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독일은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매 환자에 대한 케어와 치매 예방을 위한 국가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제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11)



東華大學 中國·上海

중국 교육부 직속 75개소 중점대학교



ACCREDITED
Eaquals
Excellence in Language Education

본교 중국어 프로그램은
중국 대학교들 중 최초로 어학연수 품질 평가인증조직
EAQUALS(유럽 비영리 국제조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비 **-200元** 쿠폰

*쿠폰은 접수시 보여주세!

| 어학연수 | 학습기간 | 개설반급 | 수업시간과 비용 | 신청마감 | 특징 |
|-------------|--------------------------------|------------------|------------------------------|-----------------------------------|---|
| 종합 중국어 프로그램 | 2025.3.3 ~2025.7.4 (18주) | 입문~고급 총9개의 레벨 | 월~금 9:00~12:15 10800위안 | 2024년 12월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제출 | 종합 언어 능력 향상시킬 최선의 선택으로 중국어의 일상 생활활동과 HSK 시험준비에 모두 도움 될 수 있음. |

중국어 학부 과정
(3월 입학)

커리큘럼 특색: 중국어 기초수업,
문화 교양 수업, 비즈니스 전공 수업 등

융통성 있는 편입학 제도:
[HSK4급 210점 이상 소지할 경우, 3년 이내 졸업가능]

동화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원 유학생 입학처
주소 上海市延安西路1882号
근무시간 월-금 08:30~17:00
전화 021 62378595 / 62379115
사이트 http://korean.dhu.edu.cn



동화대학교

지하철 3, 4호선 延安西路
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



위챗공식계정